

조지아, 세계 회의 앞에 준비되다.



조지아의 효고행동강령의 장 Olga Shashkina는 '이제 재난위험감소는 정부의 개발 우선 순위이다.'라고 말하였다.(사진: UNISDR)

By Andy McElroy

2014년 12월 08일, 트빌리시 – 조지아의 정부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고 하며 재난위험관리를 위한 야심 찬 접근방식 추구를 위해 몰두하고 있다.

현재 정책의 지혜는 40년 간의 걸쳐 일어난 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 천명의 사상자들과 140억 달러의 경제 손실들로부터 온 확실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얻은 것이다.

"십 년 전만 해도 '재해 위험 감소'는 전혀 전례 없는 문구였다" 라고 국가 효고행동강령의 장 Olga Shashkina 가 전했다.

"이제는 '재해 위험 감소'는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이다. 우리는 이 것을 정책의 정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며 점차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난 몇 년간 이뤄낸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환경보호부와 천연자원부에 소속되어 있는 Shashkina 는 이어 전했다.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제 3차 유엔 세계 재난위험경감회의의 준비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 정부는 조지아의 반응적인 재난 접근법에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접근법으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조지아는 국가 예산에서 환경 및 재해위험관리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 및 예방 조치를 위한 자금 할당량을 늘렸다. 우리의 목표는 사전 대비적인 재해위험경감 접근법으로의 변화이다."라고 성명하였다.

"조지아 의회는 새로운 시민안전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법적으로 비상관리체제와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의 사이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조지아는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될 국제회의를 내다보며, 세계적 재난위험경감 정책이 같은 변화의 길에 오를 것을 촉구하였다.

“전례 없는 노력과 세계적인 공동체 의식을 필요로 하는 교차이슈와 복합개발문제를 갖고 있는 변화하는 오늘날의 국제 사회 전망에서 취약함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안건으로써 재해위험경감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의지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450 만명 인구의 조지아는 홍수, 긴급홍수, 산사태, 이류, 눈사태, 지진, 우박, 호우, 폭풍, 가뭄과 같은 다양한 자연 재해에 직면해 있다.

두 달 전 조지아 UNDP 에서 발표한 재해위험경감능력 평가 보고서는 “자연 재해의 상당한 수준의 유해환경에의 노출 및 취약함과 결합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Shashkina 는 최근 진행 상황을 유지 또는 심지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현재 여러 부처 안에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DRR(재난위험경감)을 위한 단위 부서가 있다.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국가 안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DRR 도서관이 교육부 안에 위치해 있다. 이 모든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전례가 없던 것들이다. 나는 샌다이 세계 회의 후에 더 고무적인 발전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날짜: 2014/12/08

자료: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
-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t Incheon (UNISDR ONEA-GETI)